

# 科學技術의 水準은

## — 最新學術情報交換과



韓 化 錫 代表

존경하는 閔寬植대회장, 成佐慶 과학기술처장관,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과학기술인 여러분!

재미과학기술인을 대표하여 제 7 차국내외한국과학기술자종합학술대회의 개막에 즈음하여 인사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0년만에 찾아온 조국의 모습은 몰라볼 정도로 달라졌고 이렇게 많은 과학 기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음을 볼 때 더욱 감개무량합니다.

이는 우리 과학기술인의 저변확대요 나가아서는 국력신장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흔히 현대를 과학기술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이제 과학기술은 한나라의 富의 尺度로 바뀐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는 오직 과학기술 수준으로 구분되는 시대에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한국이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의 수준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8·15해방후 불과 30여년이란 짧은 세월속에서 더구나 6·25의 참화를 겪은 우리나라가 치열한 국제경쟁대열에 선두에서 선진 여러나라들과 어깨를 겨룰수 있다는 사실은 그동안 갖은 난관을 무릅쓰고 꾸준히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에 계신 과학기술인 여러분들의 숨은 노고의 덕택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외에 있는 저희들이 조국의 과학기술발전에 의면해왔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질과 양에서는 아무

# 先進과 後進을 劃定

## 祖國發展에 盡力 할터 —

래도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불러 일으키게 함은 숨길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미과학기술인들은 이번과 같은 기회를 통하여 국내과학기술인들과 학문교환은 물론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에너지 위기를 맞아 전세계가 큰 고통속에 있음을 볼때 그 예외가 아닌 우리나라의 실정인 만큼 저희들 과학기술인들은 합심하여 이를 극복하는 지혜와 슬기를 과학과 기술로서 찾아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과학기술인 여러분! 우리는 지난 수세기를 통하여 과학기술이 인류가 예측했던 그 속도보다는 그 결과가 더 빨리 실현되었다는 과거의 경험을 살피 볼때 에너지위기등 여러가지 현안문제들이 우리 과학기술인들의 손으로 예상보다 앞질려 해결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서로 합심하여 나아가도록 노력해 봅시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는 우리나라의 형편에서 저희들 재미과학기술인들을 초청하여 주신 閱寬植대회장, 成佐慶과학기술처장관, 그리고 이번 학술대회 준비를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80. 7. 14 .

在美韓國科學技術人

代表 韓化錫